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8

통광 스님(쌍계사 승가대학장) / 원각경(11월 18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을 보면 여러 가지 말한 것 같아도 일심을 말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에 등지면 범부가 되고, 수순하면 성인이 되고, 미혹하면 생사가 시작되고, 깨치면 윤회를 종식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중생의 번뇌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정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깨치고 보면 중생이 본래 성불한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원각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그러면 무명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일체 중생이 끝없는 예부터 갖가지로 뒤바뀐 것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동쪽을 서쪽으로, 남쪽을 북쪽으로 오인하는 것과 같이 사대를 잘못 알아 자기의 몸이라 하고 육진을 반연하는 그림자를 자기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눈병이 났을 때 허공에 꽃이 보이고 달을 볼 때 달이 둘로 보이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법회에 참가한 불자가 통광 스님의 강설내용을 노트에 기록하고 있다.

청정한 원각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무명이 생겼느냐라는 것인데, <기신론>에서는 이것을 진여법이 하나인줄을 여실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착각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것을 불각이라 하고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불각 무명으로 인해 삼세상(三細相)과 육추상(六序相)이 벌어져서 중생이 생사 윤회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불각(不覺)으로 인해 무명이 생긴 것이다. 무명은 본래 공하다'는 것입니다.

보현장은 '환(幻, 허깨비)을 여의면 깨달음'임을 보여주는 문답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는 없지 않다가 깬 뒤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뭇 허공 꽃이 허공에서 사라졌을 때에 사라진 곳이 일정하게 있다고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체 중생들은 태어남이 없는 가운데에서 허망하게도 생멸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생사에 윤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공에 꽃이 없고 달이 둘이 아니듯 무명은 본래 없습니다.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환을 여의어야 합니다. 허깨비를 허깨비인 줄 알면 곧 깨달음인 것입니다.

<선문염송>에 '<원각경>에 말하기를 일체중생의 갖가지 환화(허깨비)가 모두 여래의 원각묘심(圓覺妙心)에서 나왔다'라고 했는데 회당심이 이 말을 거론하여 말하기를 '삼세(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환이요, 일대 대장경도 환이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것도 환이요, 천하 노화상과 온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이 모두 다 환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묘심이냐'라고 했습니다. '원래 경문이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화가 모두 원각묘심에서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묘심은 무엇이냐, 묘심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각경의 사구게가 지환즉이(知幻卽離, 환인 줄 알면 곧 여읨이라) 부작방편(不作方便, 방편을 짓지 않고) 이환즉각(離幻卽覺, 환을 여의면 곧 깨침이라) 역무점차(亦無漸次, 또한 점차가 없느니라)입니다. 즉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구(한참동안 말없이 그대로 있음)를 합니다. 한참동안 있다가 말하기를 '원앙새 수놓은 것은 그대에게 보게 할 수 있지만, 그 수를 놓은 금으로 된 바늘은 그대에게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원각묘심은 말해줄 수도 전해 받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원각은 언어도단하고 심행처멸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 투자청 스님이 갖가지 환화가 원각묘심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산승의 주장자는 저 원각묘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저로부터 나왔다면 어떻게 산승의 손에 있게 되었겠는가. 모든 선덕들이여 만일 나온 곳을 안다면 부처와 조사들이 그대들 발밑에서 살려달라고 하겠지만, 만일 알지 못한다면 산승이 그대들에게 주석을 달아 설파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고 주장자를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의 원각묘심이니 주장자니 하는 것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철저히 부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투자청 스님의 뜻으로 볼 것 같으면 원각묘심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그런 도리를 보인 것입니다. 참으로 깨치려면 원각이라는 말에도 속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안장은 관행(觀行)에 대한 문답입니다. 이것을 <반야심경>의 구절로 요약하면 그 내용이 잘 드러납니다. 오온이 공한 줄로 비추어 보면 일체의 괴로움과 액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온이 본래 공한 줄로 비추어 볼 때, 오온이 본래 공한 그 자리가 법신덕이고, 오온이 본래 공한 줄 비추어 보는 것은 반야덕이고, 일체 고통과 액난에서 건너가는 것은 해탈덕입니다. 일심삼덕 삼덕일심 그 자리가 원각자리입니다. 원각 자리에서 비추어 보면 무명이 본래 공합니다.

이 자리가 불세계이고 이 불세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부처입니다. 원각경을 통해 맑고 깨끗하고 항상 깨어있는 불성을 원만히 비추어 보아 영원히 무명을 끊고 불도를 이루시기바랍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강설대법회 동영상
buddhanews.com과
bongsunsa.net에서.
셔틀버스 매주 토요일 낮12시
조계사앞 출발

질의

무명은 중생의 망견(妄見)에서 생기는 것

수경 스님(삼선승가대 학감)

[질문1] 일상생활에서 본래 부처이고 청정한데 왜 그런 자리에 무명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원각과 무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광 스님] 원각은 본래 청정한데 어떻게 무명이 생겼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해인사 장격각에 딱 두 구절의 주련이 있는데, '원각도량하처(圓覺道場何處) 현금생사즉시(現今生死卽是)'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각도량이 어느 곳이냐. 지금 현재의 나고 죽음, 우리들의 일상생활 이 자체가 바로 원각'이라는 말입니다.

옛날 스님들의 어록을 인용하자면 장수 자선 스님이 낭야 혜각 선사에게 묻기를 '청정본연(淸淨本然)한데 어찌하여 홀연히 산하대지가 벌어졌습니까'라고 물으니, 이에 대해 낭야 혜각 선사는 '청정 본연한데 어찌 홀연히 산하대지가 벌어졌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이 것은 '산하대지가 생긴 것이 없고 청정본연 그대로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중생이 본래 성불했다면 무슨 까닭으로 다시 일체의 무명이 있으며, 만일 무명이 중생에게 본래 있었다면 무슨 인연으로 여래께서 다시 본래 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때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망견(妄見)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를 탈 때 배가 빨리 달리면 옆의 언덕이 달려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의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리저리 헤아리는 것은 마치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질문2] 원각경중 특히 영가 천도시 보안보살장을 많이 독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광 스님] 영가천도 하는데 보안장을 왜 그리 많이 외우느냐는 얘기 같습니다. 보안장 말고도 금강경을 많이 외우기도 합니다. 금강경이 상을 깨뜨리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경이냐 아니면 지혜를 드러내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경이냐 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을 깨면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고, 지혜가 드러나면 상이 깨지는 것입니다. 자비광명이 비치는 곳에 극락세계가 나타나고 지혜의 눈으로 비춰볼 때 지옥이 그만 공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보안장은 처음 사마타인 지관으로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사대육신과 육진의 그림자를 반연하는 마음이 본래 공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온갖 것이 청정해집니다.

보통 영가들의 경우 죽어도 죽은 줄을 모릅니다. 영가들에게 몸과 마음이 본래 공한 원각묘심을 깨달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안장은 내용도 좋지만 문장도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러니 영가들도 좋아하겠지요

기도는 불보살 원력과 본래 원각으로 성취

석길암(동국대 강사)

[질문1] 운허 스님께서 세 번 기도하여 다 성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기도가 성취되는 것인지 원각경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광 스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은 두 가지로써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보살의 원력에 의하여 성취되고, 다른 하나는 우리들에게 본래 갖추어 있는 원각에 의지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원각은 본래 청정하고, 생멸하지 않고, 원각은 일체가 본래 구족하고, 본래 부동하고, 능히 일체 만법을 내는 것이므로, 어떠한 원을 세우고 지극 정성으로 기도하면 자신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원력에 따라 성취되는 것입니다. 불보살의 원력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은 불보살이 인행시에 일체 중생의 모든 소원을 다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원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보살님께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문2] 저같은 말세중생이 공을 깨달아 가는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통광 스님] 원각은 본래 청정하고 무명은 본래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고 부처의 행을 실천만 하면 됩니다.

<대승장엄경론>에 보면 제일 처음에 성문지(聲聞知)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부처님 교법을 듣고 불성이 있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량지(思量知)입니다. 그것을 들었으면 깊이 깊이 부처님 교법을 생각하고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관지(止觀知)입니다. 부처님의 교법에 따라 실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구경도(究竟道)는 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을 깨달아 가는 방법만 알 뿐만 아니라 공한 이치를 깨달아 자신도 깨닫고 남도 깨치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김원우 기자